

대의원 선거이후 의무자조금 추진 방향



김진중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과장

1. 서론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7년 동안 임의자조금 형태로 사업을 추 진해 오다가 2005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의무자조금사업 도입을 결의하면서 자조금의 새로운 시발점을 만들었다. 이후 협회내에서는 의무자조금 추진위 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제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난 2005년 11월 30일 대의원선거가 전국69개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치러져 150명의 대의원 전원이 선출되는 경이로운 결과를 낳았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타축종의 자조금대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낙농과 같이 대의원 전원이 선출되는 것은 유일무이할 것이다. 이것은 낙농가의 단합된 힘을 발휘함 과동시에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을 낙농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결과라할 수 있다.

현재 선출된 대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의무낙농자조금 사업의 대변자로 서 소임을 다할 것이며, 특히 자조금 거출여부, 거출금액결정 및 사업승인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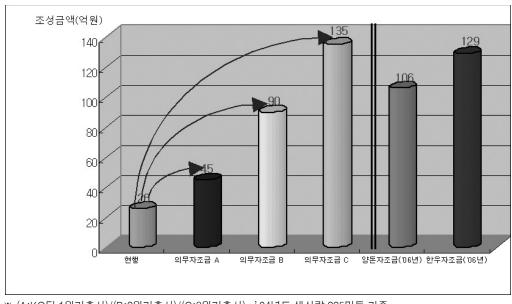
그렇다면, 향후 낙농자조금 사업 도입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절차 에 따라 선출되는 관리위원의 역할, 사무국 도입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해 보겠다.

2. 본론

가. 대의원회 개최

150명의 대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자조금 거출 여부결정과 거출 금액의 결정일 것이다. 선출된 대의원은 1차 대의원회에 참 여하여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거출여부의 결정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선출된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출금액의 한도는 동법에 따라서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 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에 원유의 평균 생산가격을 700 원/kg으로 본다면 최대 3.5원까지 거출이 가능하다.



[표1 각 단체별 자조금 조성비교, 정부보조 포함]

- ※ (A:KG당 1원거출시)/(B:2원거출시)/(C:3원거출시)-'04년도 생산량 225만톤 기준
- ※ 양돈자조금, 한우자조금 2005년도 예산기준임 (한우자조금 5월부터 집행(52억) 1년으로 환산)
- 양돈자조금, 마리당 400원 거출 / 한우자조금, 마리당 20,000원 거출

현재 임의자조금 거출금액과 향후 거출 가능금액을 표로 간단하게 설명 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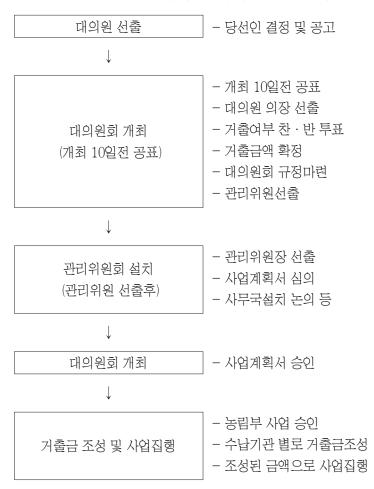
나. 자조활동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의 구성

임의자조금과 마찬가지로 자조금사업 계획서를 심의 · 의결하는 기구가 바로 관리위원회이다. 관리위원회는 선출된 대의원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을 포합하여 11인 이상 25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중 축산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소비자 단체에서 위촉하는 자, 농 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수납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 촉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선임되고 나머지 과반수 관리위원은 대의원에서 위 촉토록 되어 있다.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자조 금 조달·운용에 관한 계획수립, 자조금 운영에 관한 감사, 위원회 운영 규 정 등의 제·개정,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등의 사항들을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감사는 별도로 위촉하여 관리위원회에 포 합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표2 대의원선거 이후 의무자조금 도입절차]



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집행

1차 대의원회에서 거출여부, 금액이 결정되고 관리위원이 위촉되면, 관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심의하게 된다. 사업계획서는 거출금액 의 여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TV·라디오 광고 등과 같은 소비홍보사업, 우유관련 연구용역사업의 성격을 지닌 조사연 구사업 및 대농가홍보 등과 같은 교육훈련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관리위원회에서 사업 심의 후 2차 대의원회에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승인된 사업계획서는 농림부의 승인 후 비로소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1999년 임의자조금을 시작한 이래로 낙농자조금은 농가들의 든든한 버팀 목으로 역할을 해왔다. TV·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우리우유의 우수성과 우 리생산자 스스로 생산한 우유를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우유관련 연구용 역을 통해서 우리우유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알리기도 하고, 생산자와 소비 자와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각종 홍보행사나 지역 축제에 낙농가가 직 접 나서서 우유소비홍보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의무자조금역시 이와 같은 순기능을 할 것이며 무임승차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개방화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낙농뿐만 아니라 농업계 전반에서 많은 시 련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것이며, 그 좋은 계기가 의무자조금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의무자조금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우유의 우수성을 홍보 하여 이 난국을 해쳐 나가야 할 것이다.